부처님 가르침 영화로 만난다

2023 세계일화불교영화제, 8월 17~20일 서울 대한극장서 개최
'Re:Sonance' 주제 28개국 60편 상영…10~11월 지역 상영회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3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 8월 17일~20일 서울 동국대와 대한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폐막작 〈불효자〉의 한 장면.

2023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집행위원장 차승재)가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4일간 서울 동국대와 대한극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이 주최하며 동국대학교가 주관하는 영화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증명으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한다.

2023년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Re:Sonance-불교의 울림으로 세상과 공명하다〉 슬로건으로 28개국 60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Re:Sonance'는 불교의 울림으로 세상과 공명하는 올해 영화제의 지향점을 반영한다. 사랑, 평화, 중용 등 불교적 가치 실천이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영상을 매개로 불교적 가치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겠다는 의미를 지녔다.

〈Buddhist Lens〉〈World Cinema〉〈Shorts Collections〉〈동국 쇼케이스와 OOTT Showcase〉 등 세션을 나눠 진행되며 단편,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전 세계의 우수한 불교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은 8월 17일 서울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열린다. 개막작은 진 후야칭 감독의 영화 〈다크 레드 포레스트〉다. 〈다크 레드 포레스트〉는 척박한 티베트 환경 속에서 비구니들이 답을 찾기 위해 고난의 수행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작품이다. 그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희생해 도달하려는 궁극의 목적과 비로소 얻게 되는 깨달음을 담았다.

8월 18~20일 3일간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60여 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된다.

특히 올해 영화제에서는 각종 세계영화제 수상작이 대거 선보인다. 2021년 베니스영화제 인터필름 수상작 '아미라'와 2021년 나폴리국제영화제에서 관객이 뽑은 최고의 장편영화로 선정된 '피스바이초콜렛'을 비롯해 2021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창 부문 초청작 '견왕:이누오', 구담 스님이 연출한 국내 최초 무용극 영화 '불교진혼곡' 등은 특히 눈길을 끈다.

폐막식은 8월 20일 오후 6시 대한극장 7관에서 열리며 폐막작은 최진규 감독의 〈불효자〉다. 〈불효자〉는 출가한지 40년 만에 어머니와 여행을 준비하는 마가 스님을 다룬 다큐먼테리다.

영화제에서는 청소년 영화캠프를 포함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차승재 집행위원장은 7월 13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2회 영화제가 터를 닦는 행사였다면 올해는 잘 닦여진 도량에 기단을 세우고 서까래를 올리는 시기"라면서 "스노우볼링 효과처럼 영향력 있는 영화제로 성장, 전법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젊은 불자들에게 관심을 당부하기도 한 차 집행위원장은 "청년 영화인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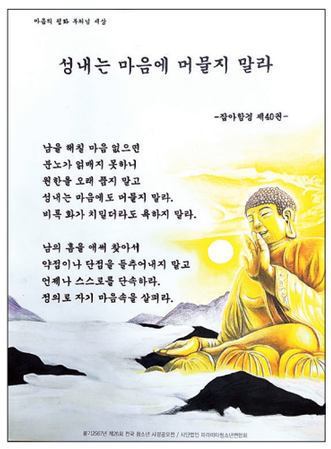
주윤식 조직위원장은 "영화제가 매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면서 "더 많은 관심 속에 불교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와 관람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계일화국제영화제는 무료로 진행된다. 영화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 티켓을 선택, 상영 당일 현장에서 예매완료 SMS 확인 후 티켓을 교환하여 관람할 수 있다. 예매한 티켓 취소는 상영일 기준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한 회차당 1인 1매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예매 사항은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는 8월 1일부터 홈페이지(www.oibf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11월에는 지역순회상영회도 개최한다. 강원과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호남, 제주 등으로 나눠 영화제 상영작을 교구에서 상영, 지역 불자들도 불교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영화제 타이틀인 세계일화(世界一花, One World One Flower)는 '온 세상이 한 송이의 꽃'이라는 뜻이다. 공식 포스터는 연꽃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으며 분홍색을 사용하여 불교 문화의 정체성과 미학을 담고 있다.

파라미타 사경 공모전 대상에 김형준 학생

포교원장 범해 스님, 7월 12일 시상
7월 21일까지 한국불교기념관 전시



대상 수상작인 김형준 보문고 2학년 학생의 작품.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파라미타)가 주최한 '제26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대상에 김형준 보문고 2학년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파라미타는 7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파라미타 측에 따르면 이번 사경공모전에는 전국 약 2만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그중 691점이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추천작들은 6월 14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6일 특별상 3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4점, 특선 10점, 장려상 10점 외에 입선 30점 등 총 63점의 작품이 우수 공모작으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소현진(동대부여고), 조서연(청담중), 김린(은석초) 학생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신미송(청담고), 최서연(은석초) 학생이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사경은 신심을 돈우는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라면서 "이번 사경 주제인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처럼 성안내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형준 학생은 "수상을 통해 불교와 한층 더 가까워 진 거 같아"면서 "앞으로도 사경하는 습관을 기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제26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자들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2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올해 사경대회 심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 김경호 사경장 전수장학생이며 前한국사경연구회장 행오 스님과 박경빈 한국사경연구회장,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실장 법정 스님, 조계종 포교국장이자 파라미타 사무총장 문종 스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파라미타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동국대학교 후원으로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지현 스님 "조계사가 큰 울타리 되겠다"

중림복지관 운영사찰로…현장 방문
직원들 만나 "우리는 한 가족" 강조
2028년 6월까지 5년간 운영지원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7월 12일, 운영지원하는 중림복지관을 찾아 시설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7월 1일부터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운희, 이하 중림복지관) 운영 사찰로 지정된 가운데,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복지관을 찾아 시설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2012년 개관한 중림복지관은 2020년까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해왔다. 2020~2023년 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다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재단은 조계사를 운영지원 사찰로 지정했다. 조계사는 2028년 6월까지, 5년간 중림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

7월 12일 오후 중림복지관을 찾은 지현 스님은 이운희 복지관장 안내로 기관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등을 비롯해 도서관과 행복나눔식당, 여가프로그램실, 하늘정원 등 복지관 곳곳을 둘러봤다.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뿐 아니라 시설 이용 회원들을 직접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조계사와 함께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라운딩 후에는 복지관 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지현 스님은 "우리는 한 가족"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복지관 활동에 있어 조계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가겠다는 운영 목표를 세웠다"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큰 울타리가 돼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운희 관장은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하는 복지관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행복과 울림을 주는,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주민 동행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신뢰를 기반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미션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서울 중구 15개 동 중림동, 회현동, 소공동, 명동 등 서부권역 총 4개동을 관할한다. 일일 850여 명, 연 2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계사가 운영지원 사찰로 지정되면서 △민간기관으로서 주체성 있는 사업수행 △불교계 사회복지 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예산활용 자율성 증대 △원활한 후원업무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은호 기자

경기지역 불자들, 정혜사 화재피해 돕기

7월 7일, 목윤 스님에 900만 원
앞서 용주사도 5000만 원 전달



경기지역 청년불자들이 최근 화재로 전소된 수원 정혜사(주지 목윤)의 복구를 위해 기금 900여만 원을 전달했다.

대불련 경기지부 동문회 연향회와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동남대 불교학생회 동문회는 7월 7일 정혜사를 찾아 주지 목윤 스님에게 화재복구기금을 전했다.〈사진〉

1985년 창건한 정혜사는 6월 21일 오전 8시 35분,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800여㎡ 규모의 3층 건물이 대부분 소실됐다. 다행히 법당을 비롯한 3층 건물이 전소하는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혜사는 현재 창고를 겸해 사용하던 아래쪽 건물에 임시로 사진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을 꾸며 놓은 상태다. 수원시의 협조로 임시 컨테이너 건물이 준비돼 스님들의 거처를 마련했으나 아직까지는 냉난방 시설 및 화장실 등이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대불청 경기지구(회장 김창규), 대불련 경기지부 동문회(회장 한경림), 동남대 불교학생회 동문회(회장 구정현)는 각각 단체별로 1차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1주일 동안 약 900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여져 이날 전달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날 한경림 회장 등 동참자들은 "경기지역 청년불자들에게 정혜사는 대학시절부터 깊은 인연을 가진 곳"이라면서 "2년 전 열반에 든 정화 스님은 청년학생들에 대한 포교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동남대 불교학생회에게는 정기법회 자리와 법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셨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정혜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국 동문들과 지역에 알려 빠른 복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도 6월 28일 화재복구를 위해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국비구니회는 7월 12일 개최된 제14차 전국지회장회에서 정혜사 화재 후원의 건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키로 했다.

임은호 기자

문화사업단, 제9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8월 31일까지 접수
관광기념품, 명상용품 등 다양

한국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 관련 문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차별성 있는 불교문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제9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진행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사업단이 제공하는 불교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해 관광기념품, 공예품, 생활소품, 명상용품 등의 디자인하면 된다.

공모전은 총상금 1100만원 규모로 수상자를 선정되며, 10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템플스테이 홍보관에 전시된다. 접수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templestay.gcontest.co.kr)에서 출품상품 설명서와 공모작품 실물사진을 접수하면 된다. (02)6953-1994

신성민 기자

불교학·국학 진흥 위해 손 맞잡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국학진흥원과 업무협약



연구, 인력 양성 등 협력키로
정묵 스님 "시너지 효과 기대"

불교학과 국학 진흥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이 교류 협력키로 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과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7월 12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국학 자료의 조사와 연구, 인력 양성과 교류와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동국역경원장 혜거 스님과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문광 스님, 전임연구원 선암 스님, 박인석 기록문화팀장이 참석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정종섭 원장을 비롯해 오용원 국학미래본부장, 김형수 국학진흥본부장, 권진호 국학기반본부장, 김순석 수석연구원, 김송주 기획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학자료 조사 발굴 △국학자료 활용 및 연구 △국학전문 인력 양성 및 교류 등을 진행키로 했다.

동국역경원장 혜거 스님은 "종교의 사회 기여는 필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학과 불교학 발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한국국학진흥원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너지를 발휘하자"며 "이를 통해 불교의 가치를 발견하고 선조들이 남긴 찬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빛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한국국학진흥원은 선조들이 남겨놓은 지식유산과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활용하는 것이 임무"라며 "한국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불교의 가치를 잘 연구해온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협약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교책연구기관으로, 산하에 5개의 연구원(소)가 있다. 현재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사업', '인문한국(HK+) 연구사업' 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학원 과정인 한문불전번역학과와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및 불교한문 번역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한문아카데미 과정을 운영 중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불교문헌 1만 4484건을 조사하고, 39만 8232컷을 고화질 촬영하여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이번 복날엔 채식 어때요?

불교환경연대, 말복까지 한 달간 채식 캠페인



불교환경연대가 초복 7월 11일부터 말복 8월 10일까지 한 달간 복날 채식 캠페인 '채식이 우리를 지킨다'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환경연대는 지난달 전국의 녹색사찰 관련 포스터와 법문자료를 보내 캠페인을 안내했다.

환경연대에 따르면 녹색사찰 수안사는 지난 11일 초복에 맞춰 노인정과 어린이집, 노인보호사교육원 등 지역주민들과 팥죽을 나눴다. 수안사 주지 묘담 스님은 "차가운 음식은 소화기능을 떨어지게 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팥죽을 초복 음식으로 택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매주 수요일 환경연대와 신대승네트워크 협력사업인 '수요밥상'에 참석하는 불교단체 활동가들도 오는 19일엔 채개장을, 8월 9일엔 들깨감자탕으로 채식을 실천할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주 목요일인 7월 27일 환경연대가 참여한 불교기후행동 캠페인에 맞춰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복날 채식 거리 캠페인이 진행된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건강한 채식을 통해 복날에 몸과 마음을 챙기고 지구도 살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